

알뜰주유소 도입 5년... “휘발유값 L당 70원 인하 효과”

지난 10일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전국 알뜰주유소의 L(리터)당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372.86원이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평균 판매가(1412.81원)보다 40원 싼다. 가격 차는 40원이지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더 크다.

석유공사는 11일 ‘알뜰주유소 사업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지난 5년간 국내 휘발유 판매가를 L당 70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일반 주유소보다 40원 낮은 알뜰주유소 판매가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100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주유소로 정부(석유공사와 농협)가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사서 공급하기 때문에 정유사 주유소보다 싼값에 소비자들에게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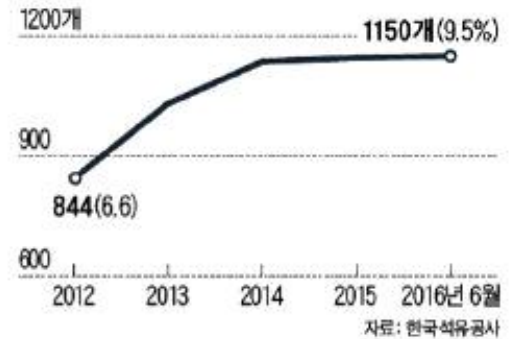
통상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주유소 유통 마진과 세금 등을 더해 결정된다. 세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석유 제품 국제 가격과 국내 소비자 판매가 차이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마진을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

유소 도입 이후 2012년 L당 206.9원에 달했던 이 가격 차이가 올 상반기 133.0원으로 73.9원 떨어졌다. 문병찬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알뜰주유소가 촉발한 경쟁으로 기존 정유사와 주유소가 마진을 줄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점점 늘고 있다. 2012년 844개에서 올 들어 1150개까지 늘었고, 전체 주유소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9.5%로 상승했다. 일반 주유소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반면 정유사와 일반 주유소는 불만이다.

전국에 알뜰 주유소 얼마나 있나
팔호 안은 전체 주유소 중 비율



정유업체 관계자는 “기름값이 떨어진 건 저유가 영향이 더 크고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선 카드 할인 등 주유시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 따져보면 알뜰주유소가 싸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